

2008 대수능 11월 15일
제2외국어영역 러시아어과목 해설지

[정답]

● 러시아어 I

문항번호	1	2	3	4	5	6	7	8	9	10
정 답	③	④	④	②	⑤	④	②	③	②	④
문항번호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정 답	②	③	①	③	⑤	⑤	③	⑤	①	③
문항번호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정 답	①	⑤	①	①	⑤	②	④	①	④	①

[해설]

1. [정 답] ③

[해 설] 발음문제: 모음약화

러시아어 모음 я는 강세가 있을 때만 я로 발음되고, 강세가 없을 때는 대부분 ɨ처럼 발음된다. 보기에 주어진 단어 тебѣ는 미줄 친 я에 강세가 있으므로, 발음이 я로 난다. 따라서 선택지의 밑줄 친 я중에서 강세를 갖지 않은 모음을 찾는 것이 문제의 답이 되는데, 선택지의 ③의 язык의 밑줄 친 я는 강세를 갖지 않고, 나머지 선택지의 я는 모두 강세를 갖는다. 따라서 정답은 ③번이다.

—<보 기>—

아빠가 너 기다리셔.

① 아저씨 ② 육류 ③ 언어 ④ 땅 ⑤ 다시

2. [정 답] ④

[해 설] 발음문제: r의 발음 변화

러시아어 철자 r의 발음은 경우에 따라서 원래의 음가인 [g]가 아닌, [v]

혹은 [k]로 발음된다. [v]로 발음되는 경우는 r가 원래의 r가 아닌 변화 결과 나타났을 때이며, [k]로 발음되는 경우는 어말에 와서 무성음화 되거나, 무성음 앞에 와서 역행동화에 의해 무성음화하는 경우이다. 보기의 밑줄 친 r는 원래의 r이며 자음동화와는 무관한 모음 앞에 있다. 따라서 발음은 [g]이다. 그런데 선택지 중 ④의 r만 원래의 r로 발음이 [g]가 되고, 나머지의 경우, ①③⑤의 r는 변화결과 나타났으므로 [v]로 발음되는 반면, ②의 r는 단어의 마지막에 왔기 때문에 무성음화하여 [k]로 발음된다. 따라서 정답은 ④번이다.

—<보 기>—

A: 상점이 어디 있지요?

B: 상점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 ① 이 분은 그의 아버지이다. ② 그는 내 친구이다.
 ③ 오늘 나는 바쁘다. ④ 이것은 러시아 신문이다.
 ⑤ 이것은 내 형의 패스포트이다.

3. [정 답] ④

[해 설] 철자

그림을 보면 (a)에는 TV, 즉 телевизор, (b)에는 전화기, 즉 телефон이 있다. 두 단어의 첫 번째 철자는 모두 т이다. 정답은 ④번이다.

4. [정 답] ②

[해 설] 어휘

대화문은 단어의 의미를 물을 때 사용하는 표현으로, 얼핏 생각하면 ①의 Что로 착각하기 쉬운 문제이다. 그러나 “러시아어로 ~는 어떻게 말합니까?”라는 표현의 준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Как по-русски “편지”? 형태의 문장이 되어야 한다. 정답은 ②번이다.

5. [정 답] ⑤

[해 설] 어휘

수사 9(девять) 다음에 오는 수(10)를 러시아어로 묻는 문제이다. 10은 러시아어로 десять이다. 정답은 ⑤번이다.

A: 너 몇 살이니?

B: 아홉 살인데, 곧 열 살 될 거예요.

- ① 3 ② 5 ③ 6 ④ 8 ⑤ 10

6. [정 답] ④

[해 설] 어휘

그림에 나타나 있는 것은 모두, 책상, 의자, 창문, 컴퓨터, 책 등이다.
선택지 ④번의 택시는 그림에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정답은 ④번이다.

7. [정 답] ②

[해 설] 문법: 존재 부정생격

문장 상에 대상의 존재를 부정할 때, 즉 뭔가 없을 때, 없는 것을 표현할 때는 생격을 사용한다.

билет(티켓)의 생격은 билет-а이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다.

A: 누가 티켓 필요하니?
B: 누나요. 누나는 티켓이 없어요.

* 필요하다: нужен의 용법: 필요로 하는 ‘사람’은 여격, 필요로 하는 ‘것’은 주격이다.

8. [정 답] ③

[해 설] 문법: 동사활용형 현재시제

동사 요리하다: готовить의 활용형은 다음과 같다:

я готовлю; ты готовишь; он(она) готовит; мы готовим; вы готовите; они готовят

따라서 주어 мы에 해당하는 활용형은 готовим이므로, 정답은 ③번이다.

엄마는 요리하는 것을 좋아 하신다. 나도 (요리하는 것을) 좋아 한다. 우리는 엄마와 함께 자주 식사를 준비 (요리)한다.

9. [정 답] ②

[해 설] 문법: 동사 идти의 용법

‘가다/오다’: идти는 뒤에 반드시 목적지가 뒤따라야 하고, 그 목적지는 방향을 표시하는 구문으로 표기되어야 한다.

방향표시는 전치사를 사용하거나, 방향표시 부사를 사용해서 할 수 있다.

목적지가 장소를 나타내는 경우: 전치사 в/на +대격

- 나는 지금 학교에 간다: Я сей час иду в школу.
- 나는 지금 우체국에 간다: Я сей час иду на почту.

그런데 목적지가 ‘사람’일 경우에는 ‘전치사 к + 여격’ 형태를 사용하여 방향을 표시해 준다.

- 나는 지금 형에게 간다: Я сей час иду к брату.
- 따라서 의사에게 가는 경우이니까, 전치사 к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정답은 ②번이다.

A: 너 어디 가니?
B: 의사 선생님께 가.

10. [정 답] ④

[해 설] 문법: 부사와 형용사 용법

빈칸 (a)에는 동사 ‘말하다(говорит)’를 수식해주는 부사가 필요하고, (b)에는 명사 ‘학생(ученик)’를 수식해주는 형용사가 필요하다.

그런데 동사를 수식해주는 대부분의 부사는 -o형태로 끝나지만, 형용사의 경우에는 형용사가 수식하는 명사와 성/수/격이 일치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한다. 문제의 명사는 남성, 단수이기 때문에 형용사 또한 남성, 단수 형태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형용사의 형태는 хороший 이다. 그러므로 정답은 ④번이다.

안드레이는 한국어를 잘 (말)한다. 그는 좋은(훌륭한) 학생이다.

11. [정 답] ②

[해 설] 문법: 인칭 대명사 용법

인칭대명사 3인칭 복수 대격 형태를 묻는 문제이다.

대화문에서 언급되는 주인공은 형들이다. 즉 3인칭 복수이다. 그런데 대화문 중 괄호 안에 들어갈 형태는 동사 звать의 목적어인 대격 형태이어야 한다. 3인칭 복수 인칭대명사 주격은 они이고, 목적어로 사용되는 대격 형태는 их이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다.

Б: 애는 이고리이고, 이 분은 일리야야.

Б : 고마워, 레나. 너도 축하해!

⑤ 테니스를 치고 있다

A: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 ① 거의 ② 안돼 ③ 죄송합니다
④ 예를 들면 ⑤ 보여 주세요

15. [정 답] ⑤

[해 설] 의사소통: 시간 묻기

대화문 B의 답변으로 보아 시간을 묻는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시간을 물을 때 사용하는 표현:

- Который час (сей час)?
- Сколько времени (сей час)?

A: 실례지만, 몇 시인지 말해주실래요?

B: 7시 20분입니다.

- ① 몇 차례 ② 무슨 요일 ③ 몇 월
④ 며칠 ⑤ 몇 시

따라서 정답은 ⑤본이다.

16. [정 답] ⑤

[해 설] 의사소통: 식사를 시작할 때의 표현

누군가와 식사를 시작할 때 일반적으로 ‘맛있게 드세요’라는 표현을 할 수 있다.

이 때 러시아어 표현은 Приятного аппетита!이다. 그런데 이 표현에는 생략된 형태가 있다:

무엇인가를 상대방에게 바랄 때: <‘원하다 желать’ + кому + 명사(생격)> 형태를 사용하는데, 여기서는 명사 생격만을 사용하여 상대방에 대한 바램을 표현한 경우이다.

- 여행 잘 가세요! Счастливого пути!
- 건강하세요! Крепкого здоровья!

그런데 문제의 그림은 가득 차려진 식탁임을 알 수 있고, 이에 따라 선택지 중 식탁에서 할 수 있는 표현을 쉽게 찾을 수 있다.

- ① 아마도 ② 그래, 그런 거 같아.
③ 나 추워. ④ 무슨 일 났니?
⑤ 맛있게 드세요.

따라서 정답은 ⑤번이다.

17. [정 답] ③

[해 설] 의사소통: 불확실한 의사소통건해(생각, 판단)

‘아마도’ может быть는 생각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을 때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다. 지문의 내용은, 책을 분실한 곳이 확실하지 않음을 나타내고 있다.

책을 어디서 분실했는지 알 수가 없네. 혹시, 식당, 공원, 아니면 버스 안에서 잃어버렸나? 어찌지?

- ① 즐겁게 ② 아름답게 ③ 어쩌면/혹시
④ 잘 가요 ⑤ 기꺼이

정답은 ③번이다.

18. [정 답] ⑤

[해 설] 의사소통: 제안/권유

완료상 동사 1인칭 복수형태를 사용해서 권유명령형을 표현할 수 있다. 이 때 의미는 명령보다는 제안에 가깝다.

형태: 완료상 1인칭복수형

A: 너 지하철 타고 학교가니?

B: 그래, 지하철 타고 가.

A: 함께 가자.

B: 좋아.

- ① 안녕!(헤어질 때 인사) ② 오래전에(-부터). ③ 아니야/천만에.
④ 가능하지/그럴 수도 있지. ⑤ 함께 가자!

정답은 ⑤번이다.

18. [정 답] ①

[해 설] 의사소통: 사실확인

주어진 광고내용을 확인하는 문제이다.

러시아박물관

전시회 «러시아 민속의상»

개관시간: 수-일요일: 10:00 ~ 18:00

일요일: 10:00 ~ 17:00

주소: 상트-페테르부르크, 엔지니어 거리, 4번지.

선택지 중 위 광고문에 나와 있지 않은 정보는 ①번 입장료이다. 따라서 정답은 ①번이다.

20. [정 답] ③

[해 설] 의사소통 : 대화문을 통한 구매상품 가격 계산

A가 구매한 물품은 펜 2자루, 연필 2자루이다.

펜은 한 자루에 20루블, 연필은 한 자루에 10루블이다.

그러므로 전체 가격은 60루블이다.

A: 이거 전부 얼마죠?
B: 뭐 사셨죠(뭐죠)?
A: 펜 2자주와 연필 2자루요.
B: 펜은 20루블, 연필은 10루블입니다. 총 60루블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③번이다.

21. [정 답] ①

[해 설] 의사소통: ‘할 수 있다/없다’의 표현

흔히 ‘할 수 있다/없다’는 동사 ‘мочь/не мочь + 동사원형’을 사용하여 표현할 수 있다.

- 내가 알아 볼 수 있어요: Я могу узнать.

- 나 내일 극장에 갈 수 없어: Завтра я не могу пойти в театр.

A: 빅토르, 콘서트 언제 있는지 너 모르니?
B: 아니, 몰라. 하지만 알아볼 수 있어.
A: 좋아, 그럼 알아보고, 나중에 내게 말해줘.

- ① ~할 수 있다 ② 살 것이다 ③ 안 간다
④ 춤추다 ⑤ 노력하지 않는다

정답은 ①번이다.

22. [정 답] ⑤

[해 설] 의사소통: 초대나 제안에 응할 때

초대나 제안에 응할 때, 일반적으로, ‘약속했어 договорились’, ‘기꺼이 с удовольствием’ 등을 사용할 수 있다.

A: 마리아, 너 나랑 아르바트 거리에 갈래?
B: 언제?
A: 토요일 아침에.
B: 좋아, 그렇ㄱ 하자(약속했어).

- ① 저런(유감이야) ② ~하고 싶지 않아 ③ ~할 필요 없어
④ 천만에 ⑤ 약속했어

정답은 ⑤번이다.

23. [정 답] ①

[해 설] 의사소통: 길 안내
대화내용으로 보아 길 안내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을 찾는 문제이다.

A: 에르미타주까지 가려면 어떻게 가는지 모르세요?

B: 곧바로 가시다가, 오른쪽으로 가세요.

- ① 곧바로 가세요 ② 여기서 일 하세요
- ③ 집에서 쉬세요 ④ 라디오를 들으세요
- ⑤ 안부 전해주세요

길을 안내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 즉 ①번이다.

24. [정 답] ①

[해 설] 의사소통: 칭찬
대화 내용으로 보아, 시험을 잘 친데 대한 칭찬하는 표현이 필요하다.

- 나 시험 다 통과했어. 5점(수/A+) 받았어.

- 잘했다!

- ① 맛있다 ② 훌륭해
- ③ 장하다 ④ 좋아
- ⑤ 멋있어

칭찬과 거리가 먼 표현은 ①번이다.

25. [정 답] ⑤

[해 설] 의사소통: 전화통화
전화 통화 시, 전화를 걸어 온 상대방의 이름을 묻는 표현을 찾는 문제이다.
전화를 먼저 걸어 온 A가 이름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지마를 찾는다. 하지만 지마는 집에 없고 전화를 받은 사람은 이반이다. 이반이 A의 이름을 묻고, 이에 안톤이라고 답한다.

전화를 걸어온 상대방의 이름을 물을 때, 다음과 같은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

- Кто это говорит?

- С кем я разговариваю?

A: 여보세요! 지마니?

B: 아는데요, 이반인데요. 지마는 집에 없어요. 그런데 누구시죠?

A: 안톤이야.

- ① 잘가요! ② 안녕히 가세요(~계세요)!
- ③ 그럼 이것은 무엇이죠? ④ 그 사람은 어디서 왔지요?
- ⑤ 그런데 누구시죠?

따라서 정답은 ⑤번이다.

26. [정 답] ②

[해 설] 의사소통: 대화전개 순서

대화문으로 보아 사전을 빌리고자 하는 내용이다.

‘빌리다’는 표현은 брать/взять를 사용한다.

A의 첫 대화문이, ‘사전 있니?’이다. 따라서 바로 뒤 이을 대화는 ‘사전의 유/무’에 관한 내용이어야 한다. 그렇다면 보기 중 a가 되어야 하고, 뒤 이어 b, c 중에서는 c. 빌려줄 수 있느냐?, b. 빌려가. 순이 될 것이다.

A: 나타샤, 너 사전 있니?

Б: 응, 그래.

A: 빌려줄 수 있어?

Б: 빌려가.

A: 고마워.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다.

27-28.

27. [정 답] ④

[해 설] 의사소통: 내용 확인

지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사합니다! 제 이름은 세르게이입니다. 저는 열 두 살입니다. 이 분은 저희 엄마입니다. 엄마 성함은 올가 이바노브나 체호바입니다. 엄마는 통역사세요. 이 분은 저희 아빠입니다. 아빠의 성함은 안톤 이바노비치 체홉입니다. 그리고 이 분은 우리 형이세요. 이름은 미하일이고, 나이는 스무 살입니다. 대학생이지요.

지문의 내용과 다른 선택지는 b, d이다. 어머니 성함은 이리나 미하일로브나가 아니고 올가 이바노브나 체호바이고, 형의 이름은 안톤이 아니라 미하일이다.

정답은 ④번이다.

28. [정답] ①

[해 설] 문화: 러시아인의 성명 구조

러시아인의 성명은 ‘이름+부칭(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만듦)+성’으로 구성된다.

즉, 부칭을 보면, 그 사람의 아버지 이름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세르게이의 할아버지의 이름을 묻고 있다. 할아버지의 이름은 지문에 나와

있지 않다. 따라서 세르게이 아버지의 부칭을 보면 할아버지의 이름을 알 수 있는데, 세르게이 아버지의 부칭은 Иванович이다.

그런데 부칭은 그 사람의 ‘아버지 이름 + -ович(男)/-овна(女)’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부칭에서 -ович를 제거하면 할아버지의 이름이 된다. 즉, 할아버지의 이름은 Иван이다. 참고로, 세르게이의 부칭은 Антонович이다. 즉, 세르게이 ‘아버지의 이름(Антон) + -ович’ 이다.

정답은 ①번이다.

29. [정 답] ④

[해 설] 문화: 예술

대화내용은 다음과 같다:

A: 안나, 볼쇼이 극장에 너 초대하고 싶어.
B: 고마워, 미샤. 그런데 극장에서 뭐 하는데?
A: «백조의 호수».
B: 정말? 나 차이코프스키 엄청 좋아 하는데!

대화를 통해 볼 때, 미샤는 안나를 «백조의 호수», 즉, 발레공연에 초대하고 있다.

정답은 ④번이다.

30. [정 답] ①

[해 설] 문화: 지리

대화문의 내용:

A: 전학할 때 크렘린을 볼 수 있습니다.

B: 붉은 광장은요?

A: 물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성 바실리 사원도 볼 수 있지요.

즉, 대화문에서 언급된 크렘린, 붉은 광장, 성 바실리 사원 등은 모두 모스크바에 있는 관광명소들이다.

정답은 ①번이다.